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추석연휴 때 성경을 한번 통독합시다”

성경통독사경회 26 ~ 28일 교회당서 개최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연휴를 이용하여 구약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한다.

이 사경회에서는 낭독자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 귀로 듣고 눈으로 따라 읽게 된다. 총 30시간동안 모세 5경을 제외한 구약성경을 한 번 읽도록 하였다. 낭독자는 임진태 목사, 원호 목사, 이순환 목사, 김명현 목사, 박귀환 목사, 이성득 목사이다.

시간표는 제 1교시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제 2교시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 3교시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26일(목)과 27일(금)은 3교시까지, 마지막 날인 28일(토)에는 2교시까지 진행한다. 12시부터 오후 2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는 식사 및 휴식시간으로 교회에서는 참가자를 위한 식사뿐 아니라 비상약품을 준비하는 등 참가자를 위한 배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경통독사경회에 참가하여 함께 성경을 읽을 때에는;

- ① 눈으로 글자를 바로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읽는다.
- ② 손에는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거나 각종 표시를 하면서 읽는다.
- 예) 주황색: 경고의 말씀(회개)
빨강색: 약속의 말씀

- 파랑색: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 ③ 장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끝부분에 “아멘”이라고 외친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장”이라고 힘차게 외친다.
 - ④ 낭독자들이 읽는 동안 일체 잡담을 금하고 성경읽기에 집중한다.
 - ⑤ 성경전체의 맥(흐름)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한다.

참가자는 통독하기에 좋은 글씨가 큰 성경과 필기구, 색연필 등을 준비하면 되는데 성경책은 당일에 교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회비는 식대를 포함하여 2만원이다. 11일(수) 현재 접수된 인원은 20명으로 등록은 선착순으로 제한된 인원만 받는다.

이 사경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연휴기간을 이용해서 말씀에 착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성경통독사경회 시간표

구분	시간
제 1교시	08:00 ~ 12:00
점심 및 휴식	12:00 ~ 14:00
제 2교시	14:00 ~ 18:00
저녁 및 휴식	18:00 ~ 19:00
제 3교시	19:00 ~ 22:00

* 28일(토)은 2교시까지



◆ 성경

성경은 1,500 여 년동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40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66권의 기록을 한데 묶은 것이다. 그 40명의 저자 중에는 농부, 어부, 왕, 철학자,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고 사용된 언어도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 등 3가지다. 그러나 성경은 무려 3,808번에 걸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이런 다양한 요소가 하나로 통일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하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책이다.

◆ 한글성경

우리말로 완역된 최초의 성경은 1887년 나온 ‘예수성교전서’이다.

공인번역성경은 1900년 ‘신약전서’가, 1911년 ‘구약전서’가 출판되었다. 이어 개역에 착수, 1936년에 ‘개역구약전서’가 1937년에 ‘개역신약전서’가 완성되었고 이를 묶은 ‘개역성경전서’가 1938년에 완성되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후엔 한글 맞춤법에 따라 1952년, 1956년, 1957년, 1961년에 약간 수정이 가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성경 1년1독

성경은 구약 39권 929장, 신약 27권 260장 등 모두 66권 1189장이다. 매일 3장, 주일엔 5장씩 읽으면 산술적으로는 1년이면 1독이 가능하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가을세미나

내년 교사 지망생도 참여 요망

19일(목) 20일(금) 양일간
오전 6시 ~ 7시, 4층에서

교육위원회(위원장 나희주 장로)에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교회학교 교사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천국시민을 양성하는 교사들의 영적인 충전과 교육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19일(목)에는 박귀환 목사(중등부 지도)가 “효율적인 교사교육과 교사관리”, 20일(금)에는 이순환 목사(새가족부 지도)가 “교회학

교의 바람직한 새신자 관리”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세미나는 이들 모두 새벽 기도회가 마치는 6시부터 1시간 동안 4층예배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세미나에 1997년도에 봉사할 교사 지망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사명감 넘치는 교사가 되자”이며 표어성구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사6:8)이다.

창세기
강해



용서와 화해

(창세기 45장 14-15절)

이종운 목사

요셉은 22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과거에 노예였음을 아는 이들이 더러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아무도 그가 요셉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오랜 한이 풀리게 된 날이고, 형들은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며, 이스라엘 열 두 형제가 하나가 된 날입니다.

1. 감정을 가진 사람

14 ~ 15절에는 요셉의 깊은 고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7세 때 노예로 팔려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국무총리의 자리에게 오르게 되었으나 그는 외로웠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가진 히브리인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감정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움직여 마침내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애굽의 종들은 이 이상한 요셉의 행동을 즉시 바로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형들에게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 날의 아픔과 슬픔, 고독과 고통을 다 잊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는 순간 지난 날의 고독과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세계를 진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망, 고독, 슬픔에 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2. 사랑의 사람

고독과 슬픔을 가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으로 요셉이 그 고통을 당했으니 그 감정을 어떻게 풀 수 있었습니까? 요셉으로서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내적 갈등과 원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은 20년이 넘도록 고독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지를 깨

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요셉은 형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3. 용서의 사람

요셉이 팔을 펴서 형들과 베냐민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냐민은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 다. 고로 형들과 요셉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만은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뿐 아니라 다른 형제의 목을 안고 입맞춤하며 울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요셉의 포용과 입맞춤은 용서를 의미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잠수시고 떡을 떼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동산에서 주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빵을 돌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압타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품어주었던만 너희는 원치 않았다”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 23:37).

4. 훌륭한 상담자

요셉은 아버지가 보고 싶어 형들을 보내어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말을 하기까지 요셉은 먼저 형들과 필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확인시켜주고 대화도 했습니다. 형들을 만난 것이 요셉에게 큰 충격이었듯이 형들로서도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난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러나 그들이 그 큰 충격을 잘 극복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면서도 형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창50:15 ~ 21). 요셉은 형들과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행하신 일과 고난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확인시켜주셨습니다. 한때 주님을 배반하여 죄의식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새로운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큰 사랑을 가졌고 참 용서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깊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일들과 자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기비만증”

자기비만증에 걸려있는 이들이 있다. 진리를 찾고 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만 방자하여 자칭 의인 노릇하는 이들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삶의 최우선을 삼는다.

자기비만증에 걸린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합병증까지 갖고 있다. 가진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건만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 업적의 결과라고까지 생각하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알 리가 없다.

자기비만증이 심해지면 수치심까지 상실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 하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져 기죽이 두꺼워져서인지 좀처럼 안색을 변하는 법도 없다. 죄 짓고 오히려 자랑하고, 비난받을 짓을 해 놓고도 자화자찬하며, 변명과 공격을 능사로 한다.

“주여, 자기 비만이 아닌 성령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적 위기”



■...이 글은 지난 9월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차경수 박사가 강연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

향락은 불건전하게 인간의 쾌락을 충족하는 행위로서 향락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대개 과소비문제가 함께 지적된다.

향락적인 행동은 일시적이고, 구체적이며, 대개 고가의 비용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비인간적이고, 건강에 해로우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저해하는 등 반사회적인 경우가 많아서 지나친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향락적 행동은 윤리가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락을 억제하는 것은 윤리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역사의 단절,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와 대중의 모방,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등 역사적 문화적 환경, 개인의 가치관과 심리적 현상, 사회의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해결책으로서는 전통과 현대적 규범의 연결,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치관을 확립하고,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신적 능력을 향상하는 일이다. 결국 우리들 자신이 문제를 분석적으로 인식하여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을 가질 때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치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향락적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몇가지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면, 가치명료화, 도덕적 판단력 향상법, 가치분석법, 의사결정법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의 개방화와 자유화, 경제적 소득의 향상,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의 진전 등에 따라서 향락적 사회현상과 윤리적 위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해체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들 현상이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여러 요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해결책 역시 단기적인, 또는 한견주의적인 방법보다 결국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순례길에서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배운대로 말씀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문회 활동이 한국교회 갱신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정운 목사
(강동중앙교회, KIMCHI동문회장)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말씀중심의 목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 1학기부터 한번도 거르지 않고 참여한 차정운牧사는 한국교회가 어떻게하면 새로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간 배운 말씀을 자신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설교의 스타일을 강해설교식으로 전환하자니 전달하는 방법과 기술이 노련하지 못해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성도들도 예화중심, 이야기식 설교에 익숙해서인지 강해설교를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졸기도 하는 모습을 더러 목격하기도 했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교회 전체가 말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차정운牧사는 5월에 있었던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제 3차 총회에서 동문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부족한 사람에겐 중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동문회를 섬길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456명의 동문과 수강하고 있는 회원들에 의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작음 바람과 개혁들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다.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강의만 들을 뿐 아니라 목회자료와 정보교환의 장이 되고 교파간, 교회간의 장벽을 넘어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활력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명일동에 위치한 강동중앙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차牧사는

술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는데 목회를 하는 아들이 8월 4일에 득남하여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며 싱글벙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교회운영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혜도 얻고 싶습니다.”

양영부 목사
(주사랑교회)

목사출신으로 중령으로 예편하여 신학공부를 한 양영부牧사. 기독교독장교회(O. C. U.)에서 이종운牧사님을 알게 되었고,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 지금 세학기째 수강하고 있다. “이종운牧사님의 로마서강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제 설교에 응용하면서 스스로를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1995년 김포에 주사랑교회를 개척하였고 현재까지 그곳에서 목회활동을 펴고 있는 양牧사는 “개척교회를 하는 저로서는 교회성장을 위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밝히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시간 정도는 참가자 중에서 성공적인 목회사례를 발표하거나 교회운영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참가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해간다는 양牧사는 학문적 지고성과 영적 성숙을 표방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얻는 말씀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교회의 행사진행, 신앙훈련, 구역관리 등 교회운영의 실제에 관한 지혜를 얻고 싶어한다.

연합다락방 모임에서

홀라후프가 즐거워

박철훈(장로, 11교구장)

올림픽공원 가족놀이터로 모였다. 남녀 노소 전가족이 지난 17일 토요일 오후의 여유있는 날짜를 기하여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11교구 연합다락방모임에 참여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올림픽공원 주위에 거주하는 성도들이기에 모임의 장소가 최적이었고 국제적 수준을 자랑하는 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다. 자세한 약도가 배부되었음에도 가족놀이터를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원래 초행길은 난코스인 법이고 그렇다고 그냥 되돌아간 성도는 한 분도 없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 아닌가.

100명이 넘는 성도가 운집한 가운데 공원 전체가 놀랄만큼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를 수 있어 좋았고 짧은 예배시간이었으나 은혜스러웠던 것 또한 감사한 일이었다. 푸짐한

음식으로 차려진 점심 겸 저녁식사시간은 가히 주님의 성찬 분위기를 연상케 하였다. 파란 잔디밭에서 펼쳐진 우리들만의 친교시간



은 영적이었고 끈끈하여 공원에 산책하러 온 신 분들의 눈요기로 충분하였다. 더구나 홀

라후프를 돌리는 게임에서는 비명이 터질만큼 수준급 이상이어서 합성과 박수소리로 천지를 진동(?)할 뻔 하였다.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어서 최고의 수준까지 사용해도 별받을 일은 없는 것이다. 푸짐한 상품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아름씩 보따리가 생겼고 선물도 받으면서 속셈으

로는 자주 이런 모임이 우리 교구에서만이라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 같았다. 필요한 자금은 누가 책임지는지 묻지 않을수만 있다면 말이다.

권사님들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에서 11교구의 진가가 실수없이 표현된 이번 연합모임

은 우리 모두의 자량으로 영원히 간직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1회 총회 소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81회 총회가 '화평케하시니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지난 12일 오후 7시 소망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52개 노회 1500명 총대가 한자리에 모인 개회예배에서 참가자들은 성찬예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박종순 목사(충신교회)와 민병익 목사(청주 복대교회)를 각각 총회의 정·부회장으로 선출하고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총회는 매일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회의 제반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난 12일에 시작하여 내일(16일) 막을 내리게 되는 이번 총회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 교우동정 ■

- * 흥한규 성도·모양순 집사(4교구, 반포 2다락방) 가정은 7일(토) 득녀.
- * 최광선·이정연 집사(2교구 개나리 2다락방)가정과 이상권·현정희 성도(2교구 개나리 2다락방) 가정은 9일(월) 청담동에 '속리산 농산물 직판장'을 개업.

순례자 생각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군가 말했다.

"절름발이로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 월터 스코트 경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보십시오. 거기 존 번연이 있습니다. 풀지 계곡의 눈 속에 파묻어 보십시오. 거기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빈곤 가운데 양육해 보십시오. 거기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소아마비로 때려 눕혀 보십시오. 플랭크린 루즈벨트가 될 것입니다. 심하게 화상을 입어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도 1934년에 1마일 경주에서 세계기록을 세운 커닝햄이 있습니다. 귀 먹게 해 보십시오. 거기 베토벤이 있습니다. 지진이라 부르며 무학 자라 약해해 보십시오. 거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정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 갱신을 위하여
2.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3.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4. 제 81회 총회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